

이종용회장의

신년사

돌이켜보면 지난해
는 여러 가지로 어려울
것 많았던 해였나니.
특히 지난해 3월 25일
보사부가 규격화 고시는
때 농민들의 생산의욕
위축시킬은 물론 생약
농업 전반에 대한

경기 친체를
가져온
더군다나
수입에 박
화로 인해
물질이 농민들에게
들어오는 수입재로
어려움을 겪고 있는
제출법은 또 다른 위
험부담을 악겨 주고 있
습니다.
이런 대일수록
마음을 모아야 합니
구립 19 ~ 21일 3월
간 송파구 방이동
림교공원
에서 열렸던 제 1회
우수국산 환약 재전시회
는 우리 한약재를 아

끼고 사람하는 분들의 흥을 죽여 성과를 더 막을 것을 내렸습니다.
모두가 다 회원여러 분들과 함께 뜻있는 불의 아침없는 지원의 결과입니다.
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몇 달 동안 개인적 행사로 모여들었고, 행사를 할

수 있었던 것은 우리 틀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식같을 갖게 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.

특히 2021년 전시 회 행사에 일반소비자들의 관심은 대단히 커졌었고, 이는 「우리생약재」

의 더욱 구한 성과와 함께 만듭니다. 지금까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온 지황을 이제 우리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날도 먼저 않겠습니까. 세계는 이제 WTO

우리 혁명에는 회원과
러불의 변함없는
실과 지원이 있음
어떠한 어려움도 그
활 자신이 있었습니다.
종자나 졸개량
대한 역구로 부가 가
생약을 개발하고 전
수술물을 지속적
로 개발할 것입니다.
특히 내수용 생약과
의 수급에 맛진을
하였습니다.
다만 회원 여러 분
에게 달무드리고 싶은
것은 종자나 졸개가
이 비싼 품목을
별하게 재배하지
자나 종자는 비싼
약재의 경우 월가
많이 삽질하는 원인

되고 또 과잉 생산 되고 또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.
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94년
마감하며 대망의 95년
을 맞게 됩니다. 어려워져가는 생
활여건을 활성화시키는 농업을 보호한 행정이 될 것입니다.
있도록 새해에는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합니다.
내년 농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? 끝으로 휴원여름
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겨우 행운을 기원합니다.

제1회 우수국산 한약재 전시회

연예대상화 문화

◇제1회 우수국산 한약재 전시회가 열린 올림픽 역도경기장.

우리 생약 살리기 일화
으로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 최초로 1
백 50여 종의 국내 배 약 재가 출兵马으며 한약 재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의 호응 속에 전시장을
은 연일 성황률을 이뤘다.
특히 수입 약재와 국산 약재를 한눈에 보고 식별할 수 있도록 진열장
비교 전시관은 일반 소비자들은 물론 한의원이나
한약방·학생들을 끌어 모았고
은 관심의 대상이 됐다.
19 일 개장식 행사에서
농림수산부장관

집 19 ~ 21일 올림픽 역도 경기장에서
국내 재배 약재 1백 50여 종 한자리에

행체가
끌기도
했는데,
선보여
는 눈길을
사는 우 행
국내 생약 재의 우 행
수성 흥보는 물론 색산
자와 소비자 만남의 장 행
마련 출판에서도 상당한 행
의미로 부각되고 있다.

도지부에게 돌아갔다.
전북지부는 이번 행사
에 도·시·군 관계 골목
를 둘러 비롯 약 1천 2백
여명의 재배농민들이 참

장관상 수상

8500억5) △백문기
사무소장(전남)
합천읍 합천리 468-5)
6) 이 각각 수상했다.
이외에도 회구약초를
비롯 가장 많은 종류 약
재를 다양하게 출품해
장을 노동부에서는 대회장
상인 특별상이 시상됐다.
했다.

韓國生藥報

本紙는 新聞倫理綱領及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.

容澤煥根玉張田長局編輯人印刷人編行人兼編

發行所
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
<우편번호 130-062>
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
1140-55(大山빌딩 3층)
☎ 967-8133, 969-6875
FAX : 965-0643
(毎月 初日發行)

지면안내

-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◎ 「화보」 사진으로 본
전시회 이모저모 | | 4 · 5 면 |
| ◎ 민간요법 | | 6 면 |

◇이승엽 전북지부장이 농림수산부장관상을 받고 있다.